

보도시점 2024. 11. 25.(월) 배포 시 배포 2024. 11. 25.(월)

# 대구 동구 한우농장 렘피스킨 발생

- 발생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발생·시군 일시 이동중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한우농장(5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렘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렘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구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1월 25일 18시부터 11월 26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동구 및 인접 6개 시군(경산·영천·군위·칠곡·수성구·북구) 소재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 동구는 위기경보 심각단계 기 발령

농식품부는 “12월 초까지는 매개곤충 활동 가능 온도 지속, 바이러스 잠복기 등 고려 시 항체 형성 미흡 개체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이 가능한 상황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도 전국 일제 방제·소독의 날 등을 통해 축사 내외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구제역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서두석 (044-201-2535)